일제강점기 일본불교 포교 톺다

한국일본불교문화학회 · 군산 동국사 공동 학술대회

최근 한일관계가 점차 악화되는 가운데 지역의 역사와 문화 속에 내재된 일제강점기의 아픔을 되새겨보는 한국일본불교문화학회(회장 원영상) 2019년 추계학술대회가 군산 동국사 주최로 열렸다.

10월 26일 군산 일제강점기 군산역사관에서 열린 이번 학술대회는 '일제강점기 일본불교의 한반도 포교'라는 대주제를 통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일본 최고의 불교계 종단인 정토진종 오오타니파의 국내 포교활동을 다뤘다.

이번 학술대회는 법우 스님(용월사 불교문화연구소)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일본 승려이자 동아시아불교운동사 연구회원인 다이토 사토시 스님이 '3.1 독립운동과 진종 오오타니파 조선포교의 변화'에 대해 발표하고 권동우 영산선학대 교수가 논평했다. 이어 니이노 카즈노부(나고야 오오타니고교 교사) 스님이 '진종 오오타니파 목포별원의 활동의 일단'을 주제 발표하고 김광식 동국대 교수가 논평자로 나섰다. 마지막으로 양은용 명예교수가 '일본의 태평양 전쟁 패배와 오하시 소쿠죠의 인양귀국'에 대해 발표했다.

스님은 "한일관계가 경색된 와중에도 종교계, 한일불교학회는 연구를 진행해왔다"며 "한일관계의 역사교류를 이어가는 통로가 되길 바라며 국가와 민족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극락암서 찾은 혜암 스님 발자취

혜암선사진흥회, 내년 탄신 100주년 선양사업 추진

'공부하다 죽어라'라는 치열한 수행정신을 강조한 혜암 스님의 발자취를 찾는 순례법회가 통도사 극락암에서 봉행됐다.

혜암선사문화진흥회(이사장 성법)는 10월 26일 통도사 극락암에서 '혜암대종사 탄신 100주년 기념 수행처 참배'를 봉행했다. 법회에는 해인총림 방장 원각 스님을 비롯해 혜암선사문화진흥회 이사장 성법 스님 등 문도회 스님 30여 명과 전국 각지에서 찾은 재가불자 500여 명이 동참했다.

방장 원각 스님은 "경봉 스님과 혜암 스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치열하게 수행하고 정진해 세상을 맑히고 살기 좋은 곳이 되도록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혜암선사문화진흥회는 2017년 남해 용문사를 시작으로 하동 칠불사, 송광사, 영원사 등 수행 현장을 찾아 순례를 이어가고 있다. 극락암은 5차 순례이며 내년 4월에 혜암 선사 탄신 100주년을 맞는다. 100주년을 맞아 해인사에서 기념법회를 봉행할 예정이며 선양사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바른 수행으로 불국정토 건설"

영천 거조사, 10월 26일 기해년 오백나한대재

영천 거조사(주지 태관)는 10월 26일 경내 영산전 앞마당에서 '2019 기해년 나한대재'를 봉행했다. 나한재는 은해사 주지 돈관 스님 등 고승대덕과 불자들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녹당차문화원의 육법공양과 헌공, 법어, 526 나한에 올리는 만발공양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거조사 주지 태관 스님은 "거조사는 각기 다른 모습과 방법으로 깨달음을 얻으신 오백나한이 계신 성지로서, 오백나한은 지금도 아픔과 고통 속에서 헤매는 중생에게 누구나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다"며 "거조사에서는 삿된 것을 버리고 바른 수행을 통해 진정한 깨달음을 이루는 보조지눌스님의 정혜결사 정신을 이어 자비와 평화의 불국정토를 이루는 나한대재를 봉행한다"고 설명했다.

거조사는 조선시대 숭유억불 정책의 영향으로 맥이 끊어진 나한대재를 2005년 복원해 '526 나한'을 모시고, 나한대재를 봉행하고 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영유아 유기, 국가제도 보완 필요"

(사)국민행복실천운동본부 전문가 간담회



영유아 유기를 예방하기 위해 출생신고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토론이 진행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토론자들이 논의하는 모습.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원치 않는 임신으로 인해 병원이 아닌 자가 출산 시 출생신고 절차가 어려워 아이의 생명권이 위협 받고, 입양마저 적기를 놓친다는 제도적 한계가 제기됐다.

사단법인 국민행복실천운동본부(이사장 정각)는 10월 28일 부산 KNN타워 2층 회의실에서 '영유아 유기 예방 및 행복권 보장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영유아의 생명권을 보장할 수 있는 국가 안전시스템을 돌아보고, 최대한 유기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망을 촉구하고자 마련됐다.

간담회서는 먼저 자가 출산의 경우 아이의 출생을 증명하기 위해 반드시 DNA검사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출생신고 후 입양절차를 밟을 수 있지만, 자가 출산 시 출생신고를 하려면 친자 확인을 위해 DNA검사를 받아야 한다. 여기에 소요되는 기간은 대략 3개월이며, 이 기간 동안 아기가 제대로 된 의료혜택을 받기 어려운 데다 보호할 곳을 구하기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제도적 한계가 산모들의 유기를 조장한다는 것이다.

하승범 국민행복실천운동본부 사무처장은 "아기 유기는 여전히 사회에서 줄어들지 않으며 발생하는 안타까운 문제"라며 "원치 않는 임신의 경우 심리적으로 산부인과 병원을 찾기조차 어렵고, 결국 출산이 다가오면 진료기록이 없어 병원에서 출산하는 것을 대부분 거절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끝내 대부분의 산모들은 대학병원에서 아이를 낳도록 권유 받지만 불안에 극도로 예민해져 할 수 없이 자가 출산을 택하게 된다"고 말했다.

자가 출산, 출생 신고 어려워
산모 불안에 극단적 방법 선택
영유아 유기 예방 선행돼야
생명 보호 베이비박스 필요

문제는 자가 출산을 하더라도 의사나 조산사의 출생증명서 없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이 DNA검사뿐이라는 점이다. 특히 출생신고가 이뤄진 뒤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할 신생아가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 목숨을 위협받는 상황이 대다수여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승범 사무처장은 "출생증명원을 받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구청 행정기관마다 매뉴얼이 달라 많은 산모들이 고통을 겪는다. 또한 가정법원을 통한 절차가 복잡해 한계에 부딪힌다"고 말했다.

이유선 변호사는 "출생신고는 출산 후 한 달 내에 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DNA검사에만 3개월이라는 시간이 소요돼 자가 출산을 한 산모가 현실적으로 정해진 기간 내 출생신고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출생신고는 법률상 의사나 조산사의 출생증명서가 필요하다. 이로 인해 미혼모의 자가 출산인 경우는 유전자 검사를 받아야 하고 그동안 아기는 방치된다. 아기의 안전을 위해 출생신고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베이비박스가 영유아 생명 보장을 위한 최후 보루 기관임을 강조하는 의견도 나왔다. 양미숙 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은 "비밀출산제가 영유아의 생명을 보장하는 적절한 문제 해결법인지 되돌아봐야 한다"며 "2014~2018년 베이비박스를 통해 인계된 아기가 1025명이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일시보호소가 영유아 보호의 경우 적절한지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간담회에는 사단법인 국민행복실천운동본부 이사장 정각 스님, 행복드림센터 운영위원장 심산 스님, 김종민 부산참여연대 공동대표, 박영미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최석민 부산지방경찰청 아동청소년과 팀장, 이유선 변호사, 최수영 부산시 사회통합과 과장이 참여했다.

심산 스님은 "영유아 생명 보장을 위해 기존 제도 보완을 할 수 있는 의견들이 나오기를 바라고 이 시대 생명을 위해 해야 할 역할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태고총림 선암사 방장에 지암 스님

10월 25일 취임법회 봉행
"총림 · 종단발전 위해 매진"



선암사 방장으로 추대된 지암 스님이 대중에게 법어를 내리고 있다.

태고총림 선암사(주지 시각)의 정신적 지주인 방장에 지암 스님이 추대됐다.

선암사는 지난 10월 25일 대웅전에서 선암사 문도스님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세심정사 회주 지암당 법성 대종사를 방장으로 추대하고 취임행사를 봉행했다.

지암 스님은 1939년 전북 순창 출생으로, 1957년 선암사에서 종산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65년 광주 관음사에서 구족계를 수지했다. 선암사 강원 사집과와 문빈정사에서 사교과를 수료한 후 선암사에서 5안거를 성만했다. 1957년 세심정사 창건, 1990년 광주전남종무원장, 1995년 태고종 총무원 부원장, 1997년 선암사 주지, 2006년 태고총림 선암사 조실 등을 역임했다. 2012년 대종사 법계를 품수했다. 현재 태고종 원로회의 원로의원과 세심정사 회주를 맡고 있으며, 지난 10월 14일 선암사 원로회의에서 신임 방장으로 추대됐다.

지암 스님은 이날 취임법어를 통해 "출가자는 몸은 항상 부지런하고 청정해야 한다. 출가자의 말은 항상 신중하고 남을 살리는 것이어야 한다. 출가자의 뜻은 항상 마음을 밝히고, 세상을 밝히는 것이어야 한다"고 말하며 "작금의 종단에는 사문의 본분사를 망각하고 청정해야 할 승가를 혼탁하게 하는 일부 세력이 있다. 불조의 혜명을 잇는 일에 누가 되는 일을 삼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스님은 "원로대덕과 재적대중의 의중을 잘 살펴 총림과 종단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취임 일성했다.

주지 시각 스님은 축사를 통해 "큰스님께서는 우리 종단의 어르신으로 존경받고 있다. 이런 어른을 방장으로 모신 것은 우리 태고종단의 큰 자랑이자 기쁨이다. 큰스님의 행장을 뒤따라가며 더욱 정진하고, 우리 종단이 한국불교 장자종단으로 거듭 태어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종교법인 세계불교 법왕청
WORLD BUDDHIST DHARMA-KING CENTRAL GOVERNMENT
문화체육관광부 2013-82호, 고유번호 101-82-23205.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도메인 세계불교 법왕청.com

종교법인 국제불교지도자협회
INTERNATIONAL BUDDHISM LEADER ASSOCIATION
문화체육관광부 2009-19호
고유번호 101-82-18115

국제 승려 구족계 금강계단 제5회 비구 수계 대법회

테라와다 상좌부 사사나 양곤 승가대학에서 단기 출가의식 직접체험

2020년 2월 16일 ~ 2월 22일

세계불교정상들의 모임
개최 예정으로 각국불교대표 및 승왕
(금강계단과 회의 일정 조율 때 친견계획중)
세계불교도들의 우꾸마라 법왕 (미얀마연방승가회 회장, 종정)
한국, 미얀마,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 스리랑카,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네사아, 중국, 대만, 일본, 말레이시아, 네팔, 몽골, 인도

종교법인 세계불교법왕청과 종교법인 국제불교지도자협회에서는 450여 종단의 모든 스님들에게 출가승으로 거듭나 10년, 20년, 30년, 40년의 법납의 스님들을 행자, 사미승의 마음으로 초발심으로 되돌아가 새롭게 발심하는 계기를 갖고자 큰 마음 큰 뜻으로 미얀마연방 공화국 종교성의 후원과 미얀마 연방승가회의 도움을 받아 三師 七證 대원로 큰스님들을 모시고 승가대 많은 스님들의 독경 속에 장엄하고 여법한 국제 금강계단을 마련하였습니다.
미얀마 국립 양곤 사사나 승가대학교와 연방승가회 정식 비구 계첩을 받게 됩니다.

■후원계좌 : 국민은행 023501-04-147581 국제불교지도자협회
국민은행 023501-04-214874 세계불교 법왕청
■신청기간 : 선착순 50명 * 제출서류 : 이력서1통, 사진1매, 여권사본
■서류제출 : 03158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 68 (청진동6번지 신영빌딩 303호)
■문의전화 : 02-733-5665 / 010-3618-6061

